



속보: 2011년 12월 9일

CUOMO 주지사, 도시 청년 고용 프로그램 결성을 위한 법안에 서명

"뉴욕 청년 일자리(NY Youth Works)" 프로그램, 직업이 없는 취약한 환경의 청년 고용을 위해 2500 만 달러의 세금 환급과 6200 만 달러의 직업 교육 비용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도심 지역의 높은 실직률을 해결해줄 도시 청년 고용 프로그램인 "뉴욕 청년 일자리(NY Youth Works)"를 결성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새로운 법안에는 무직 및 취약한 환경의 청년을 고용하는 사업체에 대한 2500 만 달러의 세금 환급과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6200 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지사는 입법기관의 동료들과 부르클린에 있는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in Brooklyn 의 Medgar Evers College 에서 열린 법안 서명 기념행사에 참석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도시의 청년들에게 경력을 쌓는 기술과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도시 청년 10 명 중에서 4 명이 일자리를 찾는 현실에서 뉴욕주는 즉시 해결되어야 하는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뉴욕 청년 일자리(NY Youth Works)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경력을 쌓도록 하고 빈곤의 순환을 방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에 대한 투자일 뿐만 아니라 뉴욕주 전체의 미래에 대한 투자를 의미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청년 일자리(NY Youth Works) 프로그램은 영구적이고 보조금을 지원 받지 않는 고용을 목표로 2012 년 상반기에 무직 청년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2500 만 달러의 세금 환급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뉴욕 청년 일자리(NY Youth Works)는 다음의 3 가지 단계에서 역할을 합니다:

- 1 단계: 일자리를 얻기 최고 6 주 전에 비영리 단체와 직원 투자 위원회와 같은 인력 제공 기관은 청년이 직업 준비, 직업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등과 같은 기술을 갖추도록 준비합니다.
- 2 단계: 사업체는 6 개월 동안 취약한 환경의 청년들을 고용하도록 세금 환급의 형태로 3 천 달러의 인건비 보조금을 제공 받습니다. 청정 에너지, 보건, 첨단 제조업, 환경보호 등과 같은 업계의 고용주들이 선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 기간에 현장 직업 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고용주에게는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1 단계와 2 단계 기간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는 직장 적응과 관련된 비용 충당을 위해 \$300 의 월 수당이 3 회까지 제공됩니다.
- 3 단계: 6 개월 동안 추가로 참여 청년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는 \$1,000 의 추가적인 세금 환급 혜택이 제공됩니다.

-추가-

새 법안에 따라 6200 만 달러의 지원금은 기본 교육 프로그램, 여름 청년 고용, 구직 활동 및 배치 운동, 자녀 보육 등을 포함하여 도시 청소년을 위한 주요 직업 훈련 및 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제공됩니다.

직업 프로그램의 적격 참여자에는 16 세에서 24 세까지의 무직의 저소득층 청년으로서 Albany, Brookhaven, Buffalo, Hempstead, Mount Vernon, New Rochelle, New York City, Rochester, Schenectady, Syracuse, Utica 및 Yonkers 지역 중 한 곳에 거주해야 합니다.

Sheldon Silver 의회 대변인은 "워싱턴이 교통 정체로 몸살을 앓는 동안 우리는 뉴욕시와 협력하여 세법의 공정성을 기하고 뉴욕의 경제를 촉구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의회의 과반수는 청년들의 실직률이 비정상적으로 높기 때문에 도시 청년을 위한 직업 프로그램을 만들고 자금 조달을 하는 것을 우선화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노동자 가정에 대한 세금을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도시 청년 고용 프로그램(**Inner City Youth Employment Program**)과 세금 환급에 대한 대대적인 동의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실업률과 경제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과 관련된 일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뉴욕의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구하고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주의 John J. Sampson 상원의원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투자는 청년들, 즉 뉴욕주의 경제적 활력과 혁신의 전설을 이어갈 미래의 직장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전향적인 입법절차에서 보여준 Cuomo 주지사의 지도력과 도시 문제에 대한 그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고용주를 위한 법인세 환급을 포함한 이번 법안을 통해 도시의 더 많은 청년들이 경력을 쌓기에 유용한 기술을 배워서 사회에 진출하도록 할 것입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젊은 나이에 취직을 하면 장기적으로 전문적인 성공을 거두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법안은 뉴욕주가 간과하기 쉬운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주의 Karim Camara 의원은, "뉴욕 청년들 사이에서 실직은 기록적으로 높으며 특히 도시의 소수민족 청년들이 그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정부가 주도해야 합니다. Cuomo 주지사와 입법기관의 동료들과 협력함으로써 뉴욕 주민들이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일련의 운동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뉴욕 청년 일자리(**NY Youth Works**) 프로그램이 뉴욕의 청년들에게 더 밝은 미래를 선사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업체들도 이런 기회를 활용할 것을 권장하며 Cuomo 주지사님의 노고에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의 Medgar Evers College 학장인 Dr. William Pollard 는, "Cuomo 주지사의 일자리 창출 운동은 뉴욕주 경제에서 주지사가 반복적으로 강조했던 일자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센트럴 부르크클린과 같은 도심 지역에서는 효과적인 도시 청년 고용 프로그램이 지역 경제를 위한 실제적 원동력과 경제 안정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미있는 직장 기회와 기회를 찾지 못했던 청년들도 이제 경제 성장과 지역 경제력을 주도하는데 힘을 보탬 수 있을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의 뉴욕 청년 일자리(**NY Youth Works**) 프로그램은 사업체와 젊은 구직자들에게 희소식이며

-추가-

뉴욕의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입법의 대상으로 삼은 Cuomo 주지사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적 호황기에도 청년들은 35 세 이상의 성인보다 실업률이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의 실업률은 지난 몇 년 동안의 장기적 경기 침체로 인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따르면 뉴욕주 청년의 실업률은 25% 이상이며 소수민족 청년의 실업률은 40%나 된다고 합니다.

이 새로운 뉴욕시 청년 고용 프로그램과 세금 환급은 Cuomo 주지사의 종합적인 뉴욕 일자리 계획의 일부이며 이번 주 초에 입법기관이 통과시켰습니다. 뉴욕 일자리 계획은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뉴욕의 인프라에 대한 투자, 수 십 년 만에 세법에 대한 새로운 구조조정을 달성한 새로운 공정 과세 개혁 계획, 440 만의 뉴욕 중산층을 위한 감세, 최근에 홍수의 피해를 입은 지역을 위한 추가 구제,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구제책을 제공하기 위한 MTA 지급 급여세 감소 등을 통해 뉴욕주 경제를 성장시킬 것이라 예상됩니다.

###

추가 뉴스는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